



접근 편하고 볼 것 많은 세계적 해양축제로



여수 돌산대교 야경

■ 여수엑스포 준비 이렇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공포된 데 이어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엑스포 준비가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지난 2002년 '2010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하고, 끈이어 2년 후인 2004년 12월 엑스포 유치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뒤, 2007년 11월 27일 파리의 팔레 드 콩그레 BIE총회에서 모로코를 제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8올림픽, 2002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여수엑스포가 처음 제안된 것이 1996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년 동안 여수와 전남은 물론 국가적으로 쏟은 열정의 결과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인 셈이다. 이 같은 열정을 최대한 살려 전남 전역, 나아가 남해안 전역이 합심해 세계박람회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정지역 초월한 국가발전 프로젝트 = 2012세계박람회는 여수반도권이나 전남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해양개발 프로젝트다. 우선 인근 지역인 광주·전남과 광양만·진주광역권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남해안 전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을 동아시아의 해양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이 한반도 남해안권을 동아시아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서남권, 경남, 제주와의 연대 협력이 절실하다.

전남은 무엇보다 시·군과 연계한 숙박시설 확충 및 루트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최지로부터 1시간권에 있는 시·군과 환상형 루트를 구



■ 여수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특정지역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충분한 숙박시설 갖춰 중국 관광객 유인책도

축하고, 남해안을 통해 연계 가능한 시·군과 연안형 루트를 구축해야 한다.

개최지와 지리적으로 1시간대 지역(순천·광양·고흥·보성·화순·구례)에는 지근 거리의 이점을 살리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락·숙박단지를 조성하고, 남해안을 통해 연계 가능한 지역(목포·장흥·강진·완도·해남·영암·진도·신안·무안·함평)에는 J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도서문화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관광객 유인 프로젝트 마련해야 = 1978년 20만여명에 불과하던 중국 해외관광객은 1996년 570만여명에 달한 후, 2006년에는 3천500만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이들 중 평소 해양·도서자원을 접하지 못한 중국 내륙 중산층들에게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남해안안이 해양관광의 적

지가 될 수 있다. 마카오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국들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아시아의 라스베가스를 목표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종합위락단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라도 2012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급증하는 중국의 해외관광객을 남해안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 현재 추진중인 박람회장 진입로는 여수반도로 집중·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5~6만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어 평균 예상치인 9만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광역교통망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중인 순천~여수 자동차전용도로(왕복 4차선, 국도 17호선)가 전부여서, 자가용 승용차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교통문화를 감안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접근성이 현

저히 떨어져 평균 예상 관광객 9만명 수용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수송이자 전국적 접근성이 탁월한 철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서울~익산~여수에 이르는 전라선을 복선·전철화해 1시간 50분대 권역이 되도록 해야 하며, 여수반도 진입로의 단일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수반도 서부간선도로(순천~달천~화양~박람회 개최지) ▲광양만권 해안철도망(박람회 개최지~울진~광양항)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등의 개최 이전 완공이 뒤따라야 한다.

◇2012세계박람회 상징물 개발 = 세계박람회의 위상 제고 및 사후 활용 차원에서 박람회 상징물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1851런던박람회의 증기기관 출품을 시작으로, 1876필라델피아박람회 전차기, 1878파리박람회 수족관·축음기·냉장고, 1889파리박람회 에펠탑, 1958브뤼셀박람회의 최초우주비행 등이 역대 박람회 최고의 상징물이다.

여수는 박람회의 주제인 해양 이미지와 부합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 교통시설이나 조형물을 개발해야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여수 프로젝트 성공 위해선?

한국정부가 박람회 유치과정에서 BIE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데에는 우리측이 제안한 여수 프로젝트(The Living Ocean and Coast Project)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수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가들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환경 및 해양과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환경회의의 등 개최...세계적 공감대 이끌어내야

마스터플랜으로 개발도상국의 연안 환경 및 지구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이 박람회 유치과정에서 지구촌에 대한 기여를 선언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약속해 세계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여수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

해서는 유엔환경회의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유엔환경회의(리우회의)는 지난 1992년 세계 178개국 3만여명(114개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년 후인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리우+10)에서 194개국 4만여명이 참석한 세계 최고의 환경정상회의로 열렸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은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12년 UN환경회의(리우+20)를 유치해 시너지를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목포, 목포에 오시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부의장 배중범의 의원일동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임건우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형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경구

(주)근화건설 대표이사 김호남

(주)현성건설 대표이사 서병수

삼환기업(주) 임직원 일동

칠성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조준현

푸른환경개발(주) 대표이사 김봉식

(주)금광 임직원 일동

홍아건설(주) 임직원 일동

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 임직원 일동

(주)C & 중공업 임직원 일동

(주)삼양시독포시료공장 임직원 일동

목포농산물도매시장 이춘용 외 임직원 일동

목포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이혁영

캐리리레인보우(주) 회장

세방(주) 임직원 일동

(주)협선 대표이사 김병찬

만호산업(유) 대표이사 이민철

전남축산물유통(주) 대표이사 백중걸

목포시의사회 회원 일동